

국별 리포트

# 요르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0. 2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8
IV. 국제신인도 .....	11
V. 종합의견 .....	13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## I. 일반개황

면적	98천 km <sup>2</sup>	G D P	206억 달러(2009년)
인구	6.3백만 명(2009년)	1 인 당 GDP	3,280 달러(2009년)
정치체제	입헌군주제	통화단위	Jordanian Dinar (JD)
대외정책	비동맹, 친미노선	환율(달러당)	0.71(2009년 평균)

- 요르단은 이스라엘, 시리아,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한 중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, 한반도의 절반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6.3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입헌군주국임.
- 석유·가스의 매장량이 미미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,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금융, 부동산, 운송,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.
- 2003년 이라크戰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 정책을 변경,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對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압둘라 국왕이 군부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 <sup>e</sup>	2010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8.0	6.6	5.6	3.1	3.0
재정수지/GDP	-6.9	-8.2	-9.9	-11.5	-10.5
소비자물가상승률	6.3	5.4	14.9	-0.7	5.0

자료: IMF, EIU

#### □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

- 2005~06년 요르단 경제는 2003년 이라크戰 발발로 인해 이라크로부터 원유 특혜지원이 중단되고 최대 교역 대상국이었던 이라크와의 중계무역, 구상무역이 타격을 입었으나, 예상치 못한 'Iraq & Gulf Effects'로 인해 평균 6.8%의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.

- \* 'Iraq Effect': 전쟁을 피한 이라크인의 요르단 유입증가에 따른 경기 부양효과(부동산, 호텔, 운송, 무역 등)
- \* 'Gulf Effect': 유가급등으로 급속히 불어난 여타 걸프 연안 국가들의 투자자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인 요르단으로 급속히 유입되는 현상

- 2007~08년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(輸入) 수요 감소,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위축에도 불구하고, 꾸준한 해외 자본 유입, 주력 생산품인 가성칼리 및 인광석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평균 5.8%의 경제성장을 기록함.

-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대외원조 및 FDI 유입이 감소하고, 관광 및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은 3.1%로 둔화되었으며, 2010년에도 3%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## □ 재정수지 적자기조

- 재정수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및 세수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, 대규모 공적 부채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정부보조금 및 국방, 치안 부문 지출 등으로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, 2006~0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였음.
- 2009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반 판매세 및 법인세 수입 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1.5%로 확대되었으며, 2010년에는 재정지출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0.5%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## □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

- 소비자물가는 그동안 3%대의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, 2006~07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 및 정부의 유가 보조금 축소, 이라크인 유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,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각 6.3%, 5.4%까지 상승하였음.
-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급등, 정부의 유가 보조금 폐지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는 사상 최고치인 14.9%를 기록하였으나, 2009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-0.7%로 하락하였음.
- 2010년에는 국제유가 및 상품 가격의 상승,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5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※ 요르단의 통화 디나르(Dinar)는 미 달러에 대한 페그제를 운영 중 (US\$1=JD 0.709 고정환율제 적용)

## 2. 경제구조 · 정책

### [구조적 취약성]

#### □ 취약한 제조업 기반, 서비스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

- 요르단은 非산유국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하나, 중동 지역의 교통 요충지라는 지형적 이점으로 금융 및 부동산, 정부서비스, 운송 중심의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하여 총 GDP의 약 66%를 차지하고 있음.
- 산업별 GDP 구성비(2009년 9월 기준): 서비스업(65.7%), 제조업(19.8%), 건설(6.1%), 광업(1.7%), 농림수산업(3.8%) 등
- 서비스업은 금융 및 부동산(20.5%), 정부서비스(14.9%), 운송 및 통신(17.8%), 상업(12.5%) 등으로 구성
-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, 제조업이 전체 GDP의 19.8%를 차지하기는 하나, 섬유, 비료 및 화학원료를 비롯한 원자재 산업이 대부분으로, 생활용품, 산업용품 등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
### [성장 잠재력]

#### □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역 물류 허브 성장 가능성 풍부

- 요르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, 홍해를 접하고 있는 아카바(Aqaba)항을 기점으로 시리아, 이라크, 팔레스타인 등을 잇는 서부 중동지역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이 같은 교통, 물류 허브의 역할은 이라크 전쟁(2003)과 레바논 전쟁(2006)을 통해 그 진가가 크게 발휘되기도 하였음.
- 최근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아카바 신항 및 3개 대규모터미널(일반 화물 및 자동차용 터미널, 곡물 터미널, 여객선 전용 터미널) 건설 프로젝트가 Public-Private Partnership(민자사업) 형식으로 추진 중이며, 2013년

완공을 목표로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.

## [정책성과]

### □ 민영화 정책 추진 활발

- IMF는 비대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. 이에 따라, 압둘라 국왕은 1999년 취임 이후 재정수입 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, 전력, 석유, 운송 등 부문별로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주요 성과로는 ① 2003년 Arab Potash Company(국영 칼륨개발공사)의 매각(지분 52%), ② 2006년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(인광개발공사)의 매각(지분 37%), ③ 2007년 Royal Jordanian(국영 항공사)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음.
- 2008년에는 Jordan Petroleum Refinery Company(JPRG)의 민영화 작업을 착수한데 이어, 의료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Public-Private Partnership을 추진해 옴.

### □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

- 압둘라 국왕은 자본 및 기술 부족 타개를 위해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, 2000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(2000.10), 대미관세면제특구(QIZ: Qualified Industrial Zone) 및 아카바경제특구(Aqaba Special Economic Zone)를 조성함으로써, 국내경제 체질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.
- 주요 성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, 암만시 내륙 물류 기지 및 환상도로 건설, 총 7억 달러 규모의 주거 및 상업단지 건설 등을 들 수 있음. 2006년에는 약 8억 달러 규모의 '마르카(Marka) 특별 개발구역 건설 계획'을 발표한 바 있으며, 극빈 지역인 마르카 지역을 향후 19년에 걸쳐 시리아와 이라크,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대규모 물류

및 유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.

- 이 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, 2004년 8억 달러 규모에 불과 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6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.

\* FDI: 20억 달러('07) → 20억 달러('08) → 13억 달러('09)

### 3. 대외거래

<표 2>

####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 <sup>e</sup>	2010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1,577	-2,924	-2,354	-1,277	-1,181
경 상 수 지 / G D P	-10.6	-17.7	-11.7	-6.2	-5.3
상 품 수 지	-5,056	-6,451	-7,165	-5,487	-5,637
수 출	5,204	5,732	7,937	6,600	7,333
수 입	10,260	12,183	15,102	12,087	12,970
외 환 보 유 액	6,979	7,929	8,918	11,423	11,737
총 외 채 잔 액	8,000	8,368	6,774	6,809	6,972
총 외 채 잔 액 / GDP	53.9	50.6	33.8	33.1	31.4
D . S . R .	5.9	5.6	14.6	4.6	5.0

자료: IMF, EIU

#### □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상품수지는 섬유, 화학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 제품, 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,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,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
- 경상수지도 2004년 흑자를 기록한 이후,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의 영향을 받아 2005년부터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, 이러한 적자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
- 2009년에는 국제 생필품 가격 하락세로 인해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, 2010년에도 약 12억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  - \* 상품수지 : -71억 달러('08) → -55억 달러('09) → -56억 달러('10)
  - \* 소득수지 : 10억 달러('08) → 3억 달러('09) → 4억 달러('10)
  - \* 서비스수지 : 3억 달러('08) → 8억 달러('09) → 10억 달러('10)
  - \* 경상이전수지 : 35억 달러('08) → 31억 달러('09) → 30억 달러('10)

## [외채상환능력]

### □ 외환보유액 증가, 낮은 D.S.R. 등 외채상황은 양호

- 외환보유액은 2000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원조자금 및 대규모 FDI 유입,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 2009년말 외환보유액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2010년에도 117억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총 외채잔액은 최근 수년간 약 8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, 2008년부터 약 67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으며, 이와 더불어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율은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, 최근 30%대를 유지하고 있음.
- D.S.R도 10%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, 외채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  - ※ 2008년 D.S.R은 14.6%로 크게 증가하였는바, 이는 파리클럽의 외채(21억 달러)를 2008. 1/4분기 조기상환한 데 주로 기인하였음.



- \* GDP : 201억 달러('08) → 206억 달러('09) → 222억 달러('10)
- \* 총 외채잔액/GDP : 33.8%('08) → 33.1%('09) → 31.4%('10)
- \* 외채상환비율(D.S.R.) : 14.6%('08) → 4.6%('09) → 5.0%('10)

### III. 정치 · 사회동향

#### 1. 정치 및 국제관계

##### [정치 안정]

##### □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 지속

-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1999년부터 압둘라 국왕의 통치하에 있음.
- 압둘라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,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이슬람 보수주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 부패척결 및 행정 투명성 증대, 금융부문 개혁 등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.
- 아울러, 정치활동 및 언론의 자유 등의 정치개혁 추진에도 주력하여 국정 운영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, 국가 개혁 기초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에 National Agenda를 발표함.
  - National Agenda는 선거법, 정당법, 연금법,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, 노동법 등 정치, 경제,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간의 국가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
- 압둘라 국왕은 2009년 11월 높은 실업률과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의회 해산\*과 조기 총선을 명령하고 2009년 12월 요르단 왕실과 가까운 정치 명문가 출신인 사미르 리파이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음.
  - \* 입헌군주국인 요르단에서 국왕은 각료 임면권과 법률 승인권, 의회 해산권 등의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.

- 2010년 4분기까지 리파이 총리 내각은 압둘라 국왕이 견지해온 시장 개방과 친서방 정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.

#### □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긴장감을 극복하고 정치 안정세 유지

-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로 인해 요르단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팽배 하였으나, 우려했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2003년 6월에는 역사적인 미국·이스라엘·팔레스타인 간 정상회담을 아카바에서 유치하고, 2003~05년과 2007년 4년에 걸쳐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, WEF) 특별 총회를 주최하는 등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부각시켜왔음.
- 2007년 11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아나폴리스(Annapolis) 중동평화회담에서 이스라엘·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협상 해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여타 아랍 국가들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이-팔 협상의 중재자로서의 노력을 재 입증시킨 바 있음.

#### [국제관계]

##### □ 서방국가 및 주변국가 등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

- 압둘라 국왕은 주변 아랍국 및 미국, 영국, EU 등 주요 서방국가에 대한 활발한 방문을 통해 중동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각인시키고 있음.
- 요르단은 대미외교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. 경제적으로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약 5억 달러(군사원조 2억 달러 포함)의 원조를 지원해 왔으며, 양국 교역은 대미관세면제특구(QIZ) 설치(1996),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(2001. 12)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- 한편, 요르단은 이라크전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고,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·경제적 반대급부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, 총 인구의 약 70%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

주민의 반미 감정은 여전히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
## 2. 사회 및 소요사태

### □ 높은 실업률 지속

- WTO 가입, QIZ 운영 및 여타 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, 정책적으로 실업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실업문제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- 동국의 실업률은 2002년 15.3%에서 2008년 12.7%로 매년 개선되는 추세이나,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3.5%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□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성과도 지지부진

-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, 구금자에 대한 학대·고문, 자의적 체포와 구금, 불투명한 조사 과정, 보안 당국의 신뢰성 부족, 사법적 과정에 대한 간여 등 광범위한 경찰권의 남용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.
- 연금, 사회보장, 상속, 노동, 이혼, 여행의 자유, 시민권, 명예살인 등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. 동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인 사건의 25% 가량이 명예살인(honor killing)\*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, 명예살인 행위는 murder(살인)가 아닌 manslaughter(고살)로 간주되며, murder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장 2년 형을 선고 받는 정도임.

\*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

- 정부는 동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제반 국제협약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,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- OECD : 5등급 (2008. 1) → 5등급 (2009. 4) 유지
- Moody's : Ba2 (2003. 8) → Ba2 (2007. 12) 유지
- S&P : BB (2003. 7) → BB (2007. 12) 유지
- ICRG : 84/140 (2009. 2) → 60/140 (2009. 12)
- I.I : 80/177 (2009. 3) → 80/178 (2009. 9)
- Euromoney : 73/186 (2009. 3) → 69/186 (2009. 9)

### 2.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 : 전액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
- 네덜란드 Atradius : 단기 인수 가능
- 영국 ECGD : 중·단기 인수 가능
- 독일 Hermes :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

### 3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외채상환부담 감소

- 2007년 10월 요르단 정부의 요청으로 파리클럽과 총 21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% 할인하여 조기상환(buy-back 방식, 할인된 조기상환 금액 19억 달러)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외채상환부담이 경감되었음.
- 동 조기상환은 요르단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양호한 외채관리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요르단은 2008년 1분기에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영화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채무액을 상환하였음.
-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요르단의 채무는 총 외채의 60% 수준인 43.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동 buy-back 대상국은 프랑스(8.58억 달러), 영국

(6.94억 달러), 미국(3.61억 달러), 스페인(92백만 달러), 독일(30백만 달러) 등임.

- 2009년 11월 정부 재정적자 해소 및 정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World Bank로부터 300백만 달러 규모의 차입을 결정하였으나, 외채 증가액이 크지 않고,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D.S.R도 10%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,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.

#### 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3> **한·요르단 교역규모** 단위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주요품목
수 출	386	734	1,019	수송기계, 기초산업기계 등
수 입	48	55	31	비금속광물, 석유화학제품 등
합 계	434	789	1,050	

\* 자료: KOTIS, 한국무역통계

- 국교수립 : 1962. 7. 26(북한과는 1974. 7. 5 수교)
- 주요협정 : 무역협정('72), 문화협정('77), 경제 및 기술협정('77), 항공협정('78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('00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('04),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('04)
- 우리나라와의 2009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33% 증가한 약 10.5억 달러를 기록함.
  -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(자동차), 기초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약 10.2억 달러, 수입은 비금속광물,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31백만 달러를 기록함.
  - 우리나라의 對 요르단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4.7%(7.6억 달러)이며, 특히, 요르단은 우리나라 최대 중고차 수출시장으로서, 2009년 86천 대(3.8억 달러 상당)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전체 중고차 수출에서 32.5%를 차지함.

○ 최근에는 발전, 하수처리, 건설,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국내기업(두산중공업, 현대중공업, LS전선 등)의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, 2010년 1월 대우건설이 5MW급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이 개시되어, 우리나라의 對 요르단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- 요르단은 현재 홍해-사해 프로젝트(Jordan Red Sea Project)\*를 추진 중이며, 동 프로젝트에 포함된 담수화 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됨.

\* 홍해에서 사해까지 166km에 이르는 대수로를 건설하여 사해의 수량 감소와 오염을 막고 홍해 아바카만에 담수화 공장을 건설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

○ 한편, 수입은 요르단의 빈약한 수출산업 기반으로 인해 비금속광물과 나프타 등 기타석유화학제품 중심의 일부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음.

□ 해외직접투자(2009년 6월말 누계, 총투자 기준): 12건 15,158천 달러

## V. 종합의견

□ 요르단 경제는 빈약한 산업기반,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기조, 대외원조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취약점이 있으나, 섬유수출 호조, 관광산업의 회복,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2008년까지 평균 6%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.

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%대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며, 향후에도 당분간 3%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대외적으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對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現 압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.

-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, 대외원조 및 FDI의 위축 등의 불안 요인이 이어져 당분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장기적으로는 압둘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확대되고 재정수지 적자폭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, 비교적 안정된 성장이 전망됨.